

대중교통 이용 공항버스

인천국제공항 1층 7B에서 안산행 버스 (리무진 일반)
탑승 → 안산역 인천공항버스터미널에서 123번 버스
탑승 → 경기창작센터에서 하차

시내버스

안산역 인천공항버스터미널에서 123번 버스 탑승 →
경기창작센터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 후 버스로 환승

4호선 안산역에서 하차 → 안산역 인천공항버스터미
널에서 123번 버스 탑승 → 경기창작센터에서 하
차

자동차 이용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분기점 우측방향 → 평택시흥
고속도로 → 서시흥톨게이트 → 송산마도IC (남양, 송
산 방면) → 남양 방면 좌측 방향 → 사강 → 당성터
널 → 구봉터널 → 불도방조제에서 좌회전 → GCC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IC → 비봉교차로에서 우회전 → 남양 → 사강
→ 당성터널 → 구봉터널 → 불도방조제에서 좌회전
→ GCC

By Bus

Airport Limousine

- Board the bus bound for Ansan, found at the bus stop 7B on the arrival floor of Incheon Airport.
- Change to local bus no. 123 at Ansan Station bus stop.
- Get off at Gyeonggi Creation Center

Local Bus

- Board bus no. 123 across from Ansan Station [subway line 4]
- Get off at Gyeonggi Creation Center.

By Subway and then Transferring to a Bus

- Get off at Ansan Station, subway line 4
- Go across the road and board bus no. 123
- Get off at Gyeonggi Creation Center.

By Car

Via Yeongdong Expressway (No. 50)

Pyeongtaek-Siheung Expressway → West
Siheung Tollgate → Songsan-mado IC (Towards
Namyang, Songsan) → Towards Namyang →
Sagang → Dangsung Tunnel → Gubong Tunnel
→ Left turn from Buldo Seawall → GCC

Via West Coast Expressway (No. 100)

Bibong IC → Right turn from Bibong Junction
→ Namyang → Sagang → Dangsung Tunnel
→ Gubong Tunnel → Left turn from Buldo
Seawall → GCC

GYEONGGI CREATION CENTER 경기창작센터



425-3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갈로 101-19
101-19 Seongam-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425-310 Korea
T. 032. 890. 482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교육 프로그램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

경기창작센터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장 극명하게 발휘되는 "예술"이라는 분야를 모티브로 다양한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의 작업과 연계한 체험교육으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 상황별에 따른 맞춤형으로 '전시감상+작가강연+예술체험+단체마당'이 어우러지는 통합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감성을 찾아보고, 그동안 낯설게 느껴진 예술에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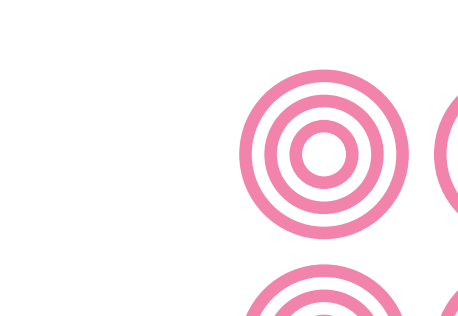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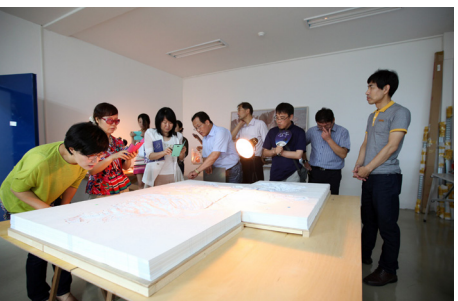
✦ 섬에서 예술에 빠지다! 상상풍당!

유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크게 학교연계캠프와 1박 2일 주말가족 캠프, 청소년 창작 레지던시 캠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연계캠프는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급별 · 동아리별 · 기타 단체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과정입니다. 1박 2일 주말가족 캠프는 5-10월 주말에 운영되며,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다양한 예술체험과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봉사 나눔을 경험하며 의미 있는 주말여가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청소년 창작레지던시 캠프는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에 운영되며, '진로탐색+창작활동'을 결합하여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이 4박 5일간 창작에서부터 전시까지 예술가로서의 프로세스를 경험해보는 과정입니다.



Creative Art Education Programs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performs a vast range of creative art education programs with the motif of "art" which demonstrates imagination and creativity most starkly. In particular, art education connected with the works of resident artists offers a more vivid and substantial process to experience. The Center also provides integrated education which 'enjoying an exhibition + artist's lecture + workshop + a group episode' are in harmony by a custom-built design depending upon targets and conditions. This would be an opportunity to find out my creative thinking and artistic sensitivity hidden inside me and to draw to art which have been felt unfamiliar for a long time in an easy and interesting manner.



지역디자인 프로그램

경기창작센터 지역디자인 사업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젝트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기도 일대 환경개선 및 디자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 GCC 예술 생태 정원 + 아트농장 GCC

경기창작센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동물농장과 텃밭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생태정원을 만들고, 예술 안에서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모색합니다.

✦ 경기도 공공 디자인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함께 경기도내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공공장소를 아름답고 쾌적한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예술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Gyeonggi Creation Center Local Design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Local Design Project emphasizes on activitie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local people on art, communicating with them based on regions. Also, it is time to advance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esign over in Gyeonggi Provi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extending the boundaries of the region.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GYEONGGI CREATION CENTER 경기창작센터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창작센터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국제 예술가 레지던시입니다. 한해 60여명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서해안의 아름다운 섬에서 함께 모여 시각예술·건축·공연·음악·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이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전시관이자, 예술가로부터 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술 놀이터,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주변 섬마을을 가꾸며 다양한 지역 예술을 실험하는 예술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operated by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under Gyeonggi Province runs the largest residency program in Korea to support the cre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Gathering in a beautiful island of the west coast every year, more than 60 artists engage in creative works with a wide variety of genre such as visual arts, architecture, performance, music and literature. Gyeonggi Creation Center is a multifunctional venue: an open exhibition space to enjoy their artworks; an art playground to learn and experience arts from artists; and an art power station where local residents and artists help each other take care of surrounding villages and experiment various local arts.



위치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방조제가 생긴 이후로 왕래가 쉬워진 선감도에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바다뱀수목원, 레저타운 등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목원으로 조성될 산을 뒤로하고 서해안의 풍광 속에 넓게 펼쳐진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의 창작과 연구를 위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자,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창의적 체험을 누리는 문화관광,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설

경기창작센터는 (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건물은 3차에 걸친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반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2단계 리모델링을 통해 스튜디오, 숙소, 교육 및 프로젝트 LAB실,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등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5월 3차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공간과 공방이 확충되고 공연장과 식당을 갖추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 작가 스튜디오 57실
- 아트텔(숙소) 40실
- 전시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대부역사관, 창의체험전시실, 실험전시실
- 그 외 시설 아카이브실, 목공방, 미디어공방, 창의예술체험실, 다목적강당, 식당 등

Loc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is situated in Sungam-do, Ansan-si in Gyeonggi Province. Since the construction of Siwha Tide Embankment has made people easy to come and go in Sungam-do, Gyeonggi Do Provincial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and Gyeonggi-do Youth Center have been nestled down. Besides, various cultural tourist facilities like the Badavae Arboretum and a leisure town will be established over the next few years.



Stretched away in the scenery of the west coast with a mountain which is to be created into the arboretum behind, Gyeonggi Creation Center would be not only the optimum place to inspire artists for their creation and study, but also the center of cultural tourism and education for visiting tourists to enjoy sophisticated cultural arts and creative experiences,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near the sea.

Facilities

Gyeonggi Creation Center was remodeled from the former Gyeonggi Province Vocational School. A total of seven buildings have been revived as infrastructure on a large scale to accommodate artists of various genres after the three-stage remodeling. The first and second stage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studios, residence, Labs for education and projects, exhibition halls, offices and seminar rooms. In 2013 May, the tertiary remodeling

was completed by expanding exhibition spaces and workshops, equipped with a theater and a cafeteria.

- Artist studios – 57
- Artel (Accommodation) – 40 rooms
- Exhibit halls – Permanent Exhibition Hall, Special Exhibition Hall, Hall of Daebu History, Creative Arts Experience Room, Experiment Gallery
- Other facilities – Archive, Woodwork Workshop, Media Workshop, Creative Arts Experience Room, Multipurpose Auditorium, Cafeteria, etc.



예술가 레지던시

경기창작센터의 예술가 레지던시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화, 음악, 문학 등 모든 예술적 창작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작가와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입주기간 동안 경기창작센터는 보다 활발한 창작과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멘토링, 강연,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주 예술가 선별은 공개 모집, 초청, 기관 협력, 교류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주 기간 또한 3개월부터 2년까지 다양합니다.

레지던시 구분

창작레지던시

국가 공모로 선발 국내외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지원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기획레지던시

지명 또는 공모로 선발 입주작가의 개별 창작활동 지원과 더불어 경기창작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예술 결합형 프로젝트 및 지역 협력 사업과 관련한 아이템과 프로그램의 개발

초청레지던시

추천에 의한 초청 공모의 시작지대에 있는 국내외 영향력 있는 예술가 및 연구자를 초청하여 창작·연구 지원 및 입주작가를 위한 멘토 역할 부여

기관협력레지던시

협력기관에서 선발 경기도 지자체 및 여타 기관 단체 간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지역 예술가와 교류를 위한 환경 제공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Artist Residency

The artist residency programs of Gyeonggi Creation Center open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and related researchers who develop all kinds of artistic creation activities, including visual and performing arts, film, music and literature. A diversity of programs such as mentoring, lectures and workshops are provided in order to support them for their more active cre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during their residency. The selection process of artist residency depends upon open calls, invitation, collabo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and interchanges. Duration of a residency varies from a maximum of two years to a minimum of three months.

Residency Category
Creation Residency

Selected by regular open calls. Providing creative space for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and all sorts of programs for facilitating their creation.

Project Residency

Selected by nomination or open calls. Along with the support for individual creation activities of resident artists,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of Gyeonggi Creation Center, art-combined projects, and items and programs relating to local collaboration business.



예술가 창작 지원 프로그램

입주작가 공모

경기창작센터는 해마다 약 30-35명의 규모로 창작레지던시의 입주작가를 모집합니다. 입주기간은 한국 작가의 경우 1년과 2년이며, 해외 작가의 경우 3개월입니다. 공개 모집 접수는 매년 10-11월경에 이루어지며 심사는 12-1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매년 3월부터 입주하여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작활성화 프로그램(멘토링&워크숍)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예술적 지평 확장을 돕기 위하여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 개최합니다. 입주작가 멘토링은 작가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힘들었던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입주작가를 연결시키고, 작업 발전을 시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됩니다. 초청 멘토는 장르 비평가와 이론가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초청합니다.

오픈 스튜디오

60여명의 입주작가들이 한 해 동안 창작한 과정과 결과를 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에서 일반에 공개하는 축제로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센터의 모든 공간이 열린 토론과 발표의 장으로 변모하는 기간으로, 참여 작가들은 예술과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 행사, 공연을 기획하며, 관람객들은 작가가 진행하는 예술체험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 및 공연 발표

경기창작센터에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실험전시실, 공연장이 있습니다. 센터는 다양한 입주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과정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연중 제공합니다.

국제교류

경기창작센터는 레지던시를 통한 국제 교류가 특정 사업이나 전시를 위한 짧은 기간의 방문과 차별되는 보다 폭넓은 문화적 교감과 예술적 아이디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9년 개관과 함께 경기창작센터는 레츠아티스 컨퍼런스 유치, 르빠비옹(프랑스)과의 기획 교류전 <우리시대의 다문화>, 네덜란드(BKVB),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아프리카 센터와의 작가교류 및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일본(AIAV), 호주(AsiaLink), 뉴질랜드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스페인과의 지속적인 작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폭넓은 문화적 교감과 아이디어 확장에 주력할 것입니다.

Artist Supporting Program

Open Calls for Resident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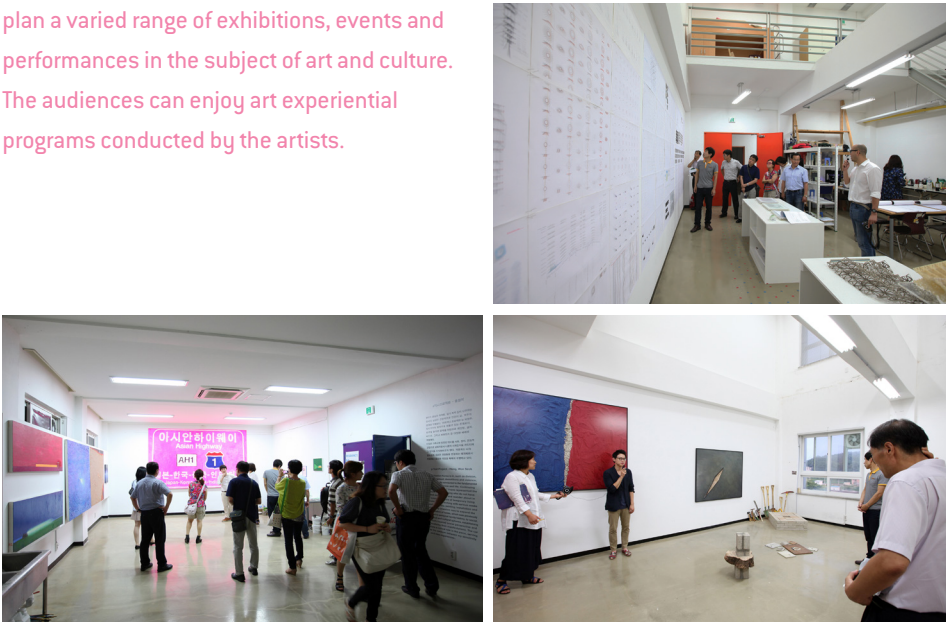
Gyeonggi Creation Center recruits some 30-35 resident artists every year for the creation residency. The residence duration is two years and one-year respectively for Korean artists, and three months for foreign artists. A call for applications is announced during October and November, and screening of applicants is carried out in December and January. Selected artists move in March and begin their creative works.

Creation Revitalization Programs (Mentoring & Workshop)

Gyeonggi Creation Center plans and hosts many large and small events to help a constant growth and the expansion of artistic horizon of artists. Mentoring programs for resident artists are to link many experts who are difficult to contact personally from Korea and abroad with the artists, making in-depth discussions on work development. Visiting mentors are not limited to genre critics and theorists, but the experts from wide-ranging fields are arranged and invited.

Open Studio

Open Studio is the most representative event of the residency program as a festival which opens the process and outcomes created by around 60 artists for a year to the public in studios, exhibition halls and a theater. It is the period for all space of the center to be shifted into a place for open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which participating artists plan a varied range of exhibitions, events and performances in the subject of art and culture. The audiences can enjoy art experiential programs conducted by the artist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Gyeonggi Creation Center is composed of permanent exhibition halls, special exhibition halls, an experiment gallery and a theater. The Center provides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share different experimental working processes of resident artists throughout the year.

International Exchange

Gyeonggi Creation Center believes that international exchange by means of residency programs makes a broader 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change of artistic ideas available distinct from short-term visits for a certain business or exhibi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will focus on a broader cultural communication and the expansion of ideas through continuous artist exchange programs with Japan(AIAV), Australia (AsiaLink), New Caledonia,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Spain.